



고령사회의 노인혐오

안소영 연구원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늘어나고 부양의식이 변화하면서 노인혐오 현상이 우려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80%가 노인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음. 노인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세대 간 인식변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양부담 증가로 부정적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현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노인혐오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의 ‘꼰대’ 문화를 설명하며, ‘자신은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이라고 소개함¹⁾
 - 고령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 ‘노인은 실력보다 나이, 경력, 직위 등으로 권위를 세우려 한다’는 문항에 각각 71.7%, 63.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실력과 괴리된 권위주의 의식에 대한 편견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²⁾
-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인종합보고서³⁾에 따르면 청년층 80%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음

■ 노인혐오 문제는 고령사회의 진행으로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세대 간 인식변화와 사회구조적 요인과의 연관성이 있음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약 30년 동안 국민의 가치관 변화를 그 나라의 노인비율(65세 이상)과 연관지어 분석한 결과,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나 존경이 줄어듬⁴⁾
- 노인혐오 문제는 세대 간 인식변화와 사회구조적 요인과의 관련이 있음
 -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및 도시화로 핵가족화, 전통적 노부모부양체계의 붕괴현

1) The Economist(2019), “The word for “condescending old person”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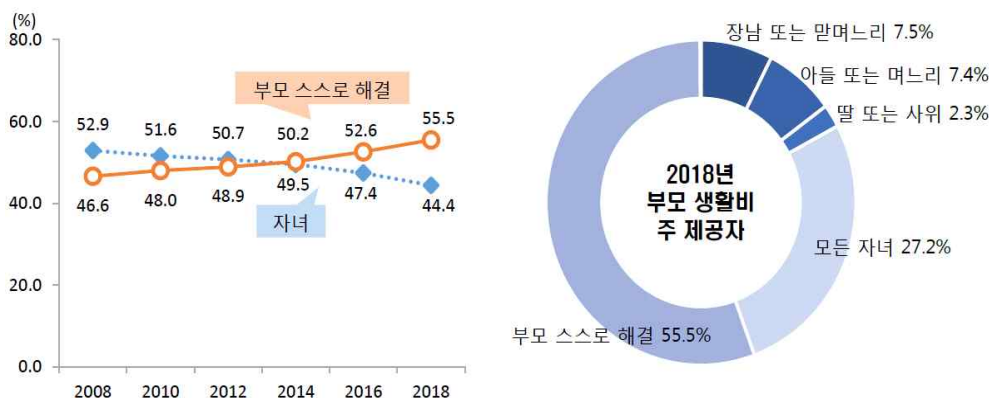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7),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3) 국가인권위원회(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

4) 중앙일보(2019), “고령화 진행될수록 사회적 연대와 신뢰 줄어든다”

- 상)을 겪으면서,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그림 1>참조)
- 부양구조와 인식변화로 인해 소통의 기회가 적어지며 공동체를 중시하는 고령계층과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젊은 층 사이의 가치관 대립이 심화됨⁶⁾
 -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할 교육 제도나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노인협회는 개인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책화가 필요한 사안임⁷⁾

〈그림 1〉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부양의식)



자료: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양부담 증가가 있음

- 한국은 2017년 8월 고령사회⁸⁾에 진입하면서 경제 수요자 중 고령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됨
 -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45년 37.0%로 일본(36.7%)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⁹⁾됨
 - 청년 77.1%는 노인복지 확대에 청년층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응답¹⁰⁾함
- 청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은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¹¹⁾은 한국 노년부양비가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¹²⁾하여 실제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5) 통계청(2018), 『노년기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6) 굿모닝충청(2018), “[어르신 고민 Q&A] 노인협오(협로) 문제 심각하다”

7) 굿모닝충청(2018), “[어르신 고민 Q&A] 노인협오(협로) 문제 심각하다”

8)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일 때를 의미함

9) 통계청(2019),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10) 국가인권위원회(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

11) 통계청(2019),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12) 유엔 201개국 노년부양비는 2019년 14.0명에서 2067년 30.2명이 될 것으로 전망함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36%의 근로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서비스와 재화 생산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¹³⁾

〈표 1〉 세계와 한국의 부양비

(단위: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구분	1970년			2019년			2067년		
	총	유소년	노년	총	유소년	노년	총	유소년	노년
세계	75.0	65.7	9.3	53.2	39.2	14.0	62.0	31.8	30.2
아시아	79.6	72.9	6.7	47.7	35.0	12.7	62.9	26.5	36.4
유럽	55.6	39.4	16.3	53.5	24.6	28.8	76.4	25.5	51.0
북아메리카	61.7	45.7	15.9	53.0	28.0	25.0	70.5	27.3	43.2
한국	83.8	78.2	5.7	37.6	17.1	20.4	120.2	17.8	102.4

자료: 통계청(2019),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한국보다 빠른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은 연령주의¹⁴⁾ 문제를 앞서 경험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 고령자의 지역사회 및 세대 간 유대감 강화를 제안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을 개정함

- 일본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혐로사회(嫌老社會)라는 신조어가 발생함¹⁵⁾
- 2017년 고령사회전문가포럼에서 일본은 연령주의의 대응 방안으로 젊을 때부터 부모님, 자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의 중요성을 상기함¹⁶⁾
- 또한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Law concerning Stabilization of Employment of Older Persons)을 개정하여 기업이 65세까지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게 함¹⁷⁾

- 청년층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 고령자의 고용안정성 보장을 통해 정부는 고령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장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상황에 대한 일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¹⁸⁾
- 실제 2019년 기준으로 일하는 인구 100명이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정년시기를 65세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노년부양기에 다다른 시점이 9년 미뤄진 2028년이 됨¹⁹⁾
-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변화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세대 간 간극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kiqi**

13) 한국개발연구원(2019), 『고령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14) 연령주의(Ageism)란 Butler(1969)에 의해 일반화된 용어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포괄적으로 포함함

15) 중앙일보(2019), “고령화 진행될수록 사회적 연대와 신뢰 줄어든다”

16) Okuyama, K.(2017), 『노화·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연령주의):현실과 대응방안』

17) Kodama, T.(2015), Elderly Employment in Japan

18) Kodama, T.(2015), Elderly Employment in Japan

19) 한국개발연구원(2019), 『고령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